전치사 with하면 '-와 함께'라는 뜻이 제일 먼저 떠오를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의미로 with를 해석하면 무난하다. 그러나 작문을 하는 사람이라면 좀더 자세하게 with에 대해서 알아야한다. 왜냐하면 우리말은 같지만 영어로 옮길 때는 다른 전치사를 써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때문이다. 그래서 작문이 어려운 것같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with의 뜻을 알아보자.

with가 쓰이는 기본적인 상황은 주어(목적어)와 with 다음에 오는 명사가('-와 함께'라면 반드시 두 명사가 있어야 한다)가 '서로 같은 상황'에 있어야 한다. 같은 상황에 있지 않으면 with를 쓸 수 없다. '그는 그녀와 함께 춤을 추었다'라는 문장을 예로 들어보자.

He danced with her.

주어인 그(He)와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 즉 전치사의 목적어인 그녀(her)는 같이 춤을 추고 있다. 추물 춘다는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Hyunsoo studied English with me. My wife drank a good wine with me. She corresponds with him. She associated with him.

첫 번째 문장에서 현수와 나는 공부를 하고 있는(studying) 상황이 서로 같다. 두 번째 문장에서 나의 아내와 내가 술을 마시는 상황이 나와 같다. 아내 혼자 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내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이다.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with를 썼다.

그러면 아래 두 문장을 비교해 보자. 의미상 어떤 차이가 있을까?

Tom is friendly with her. Tom is friendly to her.

Parents handed over their fortune to their son.

첫 번째 문장에는 with가 쓰였다. with는 앞서 설명했듯이 상대가 되는 두 명사(Tom, her)가 같은 상황에 동시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Tom과 her은 친하다. 서로 서로가 친한 것이다. 하지만 두 번째 문장은 상황이 다르다. Tom이 그녀(her)에게(to) 친하다는 말이다. 친절한 상황을 공유해서 그녀도 Tom에게 친한지는 알 수 없다. 친절하다(be friendly)는 상황을 동시에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with를 쓰지 않고 to를 쓴 것이다. 세 번째 문장 역시 마찬가지다. 부모님의 재산을 아들에게 모두 남겨 주었다. 그래서 아들이 재산을 갖고 있다. 부모와 아들이 재산을 공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to이다.

He argued with her. Stop fighting with your younger brother. He has a race with her. 위 문장에서 두 대상은 논쟁(argue)을 하거나 싸우거나(fighting) 경주(have a race)를 하는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with를 썼다.

with 뒤에 사람이 올 경우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어떤 것이나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지만 with 뒤에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사물 특히 어떤 도구가 온다면 주어가 이 도구를 사용한다는 말이다. 이때 with는 어떤 일을 하는 '수단'을 나타낸다.

Tom killed her with a knife.

Tom killed her with Jonathan.

첫 번째 문장은 Tom이 knife라는 도구를 가지고 그녀를 죽였다는 말이다. 두 번째 문장은 그녀를 죽이는 상황을 Jonathan과 함께 했다는 말이다. Tom과 Jonathan은 함께 그녀를 죽였다. with가 도구로 쓰인 예문을 보자.

He walked with a stick.

Cut it with a pair of scissors.

Please eat it with a spoon.

그는 어떤 도구(수단)로 걸어갔냐 하면 지팡이(stick)의 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걸어갔다는 말이고, 무엇으로 자르느냐 하면 가위(scissors)를 이용해서 이고, 무엇으로 먹느냐 하면 숟가락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먹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by를 쓰게 되면 도구의 수준이 아니라 '전적으로 by 이하의 명사에 의해서'라는 뜻이 된다.

This picture was taken by me with a cheap camera. Jesus drove out demons with a word.

이 사진은 전적으로(by) 나에 의해서 찍혔다. 카메라는 도구로서(with) 사용되었다. 예수는 악마를 쫓아 버렸다. 악마를 쫓는데 사용한 도구는 바로 말(a word)이다.

그러면 친구의 도움으로 수학 숙제를 했다고 한다면 by를 쓸까 with를 쓸까? 생각해 보자.

I did my math homework by my friend.

I did my math homework with my friend's help.

먼저 my friend's help라는 말을 살펴보자. 친구의 도움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친구는 도움(help)을 주었을 뿐이다. 내가 내 힘으로 수학 문제를 거의 다 풀었고 모르는 것 한 두 개를 친구에서 물어보았다는 말이다. 도움이란 말 그대로 일부분을 뜻한다. 따라서 도움을 의미하는 help 때문에 with를 써야한다. 하지만 by my friend라고 하면 친구가 내 수학 숙제 전부다 해주었다는 의미다. 수학 숙제가 어려워 '전적으로(by)' 친구에게 넘겨주었다는 말이다('영향을 나타내는 by'참고). 물론 이렇게 숙제를 하면 안된다.

'자동차를 팔아 생계를 유지한다'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앞서 설명했듯이 전적으로 자동차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게 때문에 by이다.

He makes a living by selling cars.

학교에서 잘 익힌 것처럼 동사를 포함해서 '-을 함으로써'라고 할 때는 'by -ing'를 쓴다. 무조건 그렇게 쓴다. 딱 하나의 예외를 제외하고. 조금 전에 help는 '전적으로'가 아니라 '일부의 도움'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help란 말에는 with가 어울리기 때문에 동사에 help가 올 때는 'by -ing'를 쓰지 않고 'with -ing'를 쓴다.

He helped her with washing the dishes.

What can I help you with?

방향을 조금 바꾸어 보자. with는 '-와 함께'라는 뜻이 있다. 이 말은 '같은 방향'이라는 뜻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같은 방향이 아니면 함께 하지 않는다. 따라서 with에는 '같은 방향'이라는 뜻도 있다. 무엇을 함께 하지 않는다면 등을 맞대고(against) 다른 방향을 향하겠지요.

We sailed with the wind(against wind).

그리고 '같은 방향'이라는 말은 '찬성'하는 이라는 말이기도 하다. 물론 '반대'한다면 against를 써야겠다.

You are either with me or against me.

People voted with the government.

그리고 with는 '이유'를 나타내기도 한다(물론 because of나 for, through도 마찬가지다). with가 이유를 나타낸다고 해서 무조건 이유에 with를 쓸 수는 없다. 앞서 설명했듯이 '어떤 상황을 동시에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 즉 어떤 상황이 말할 당시에 존재하고 있어야만 with를 쓸 수 있다는 말이다.

The beggar is shaking with a cold.

She is troubled with rheumatism.

첫 번째 문장에서 거지는 감기 때문에 떨고 있다. 즉 그녀가 떨고 있는(shaking) 것과 감기(a cold)는 거지에게 동시에 존재한다. 있다. 두 번째 문장에서 그녀는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다. 그녀가 고생하고 있는(trouble) 때와 관절염(rheumatism)은 동시에 존재한다. 그래서 with를 쓴 것이다. 잘 이해가 안된다면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 for가 쓰인 문장을 살펴보자.

He was rewarded for his bravery.

그는 용감했기 때문에 그 보상을 받았다. 그가 상을 받았을 때(was rewarded)와 용감했을 때(bravery)는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 아니다. 그는 이미 용감했고 그래서 그 후에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for를 쓴 것이다. 이유를 나타내더라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면 반드시 with를 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이유를 나타내는 for는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라 간접적인 이유일 때 그리고 부가설명적일 때 쓴다('목적을 나타내는 for'참고).

이처럼 전치사 with는 어떤 상황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을 때 쓴다는 것을 알았다. with의 이러한 의미의 전형적인 예는 어떤 행동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부대상황'에서 가장 잘 찾아 볼 수 있다. 어떤 행동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부대상황을 나타낼 때 with를 쓴다. 소위 'with 부대상황'이다. 시험에도 빠지지 않고 출제된다(with 분사구문은 '문장의 시작은 주어부터이다'에서 설명했음. 참고 바람). 먼저 두 동작이 동시에 일어날 때는 그냥 and로 연결할 수도 있다.

He is reading a newspaper and his wife is knitting beside him.

이 문장은 글을 읽는 사람에게 별 감흥을 일으키지 못한다. 다소 건조한 문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with 분사구문(with + 목적어 + 목적보어)'으로 표현하면 생동감있는 표현이 된다.

He is reading a newspaper with his wife knitting beside him.

이 문장은 앞선 문장보다 훨씬 생동감이 있다. 남편은 신문을 보고 그의 아내가 뜨개질하는 고전적인 풍경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with 다음의 목적어와 목적보어의 관계는 주어와 동사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She is sleeping with her mouth watering. He sat on the sofa with his legs crossed. He is standing with his arms folded.

그리고 with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 '-을 가진'이라는 뜻이다.

a book with a green cover a child with a pretty face a girl with blue eyes

They fought with courage.

He worked with joy(with great interest).

녹색의 표지를 가진 책, 예쁜 얼굴을 가진 아이, 푸른 눈을 가진 소녀처럼 추상적인 것이든 구체적인 것이든 어떤 속성을 갖고 있거나 몸에 지닌다는 의미를 지닐 때 with를 쓰면 된다. 때론 with가 '주어가 갖고 있는. 상당히 오래 지속되는 감정이나 자극의 원인'을 나타낸다.

He is pleased at the news. He is pleased with the news.

He is satisfied with his income. He is troubled with a toothache.

전치사 at은 앞서 설명했듯이 '한 점'이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at을 쓴 첫 번째 문장은 '소식을 듣고 그 순간(한 점) 놀랬다는 의미다. 반면에 with를 쓴 두 번째 문장은 그 소식에 대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기뻐한다는 말이다. 마지막 문장은 치통(toothache)으로 그 순간 문제가된다는 말이 아니라 치통으로 상당히 오래 동안 문제가 되었다는 말이다. 기쁘다. 즐겁다(be pleased, be delighted)와 같은 감정은 지속될 수 있지만 놀라다(be surprised, be astonished, be alarmed, be frightened)와 같은 단어들은 순간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 단어들에는 with를 안 쓰고 at을 쓰는 것이 좋다.

그리고 with는 '-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가 있다. with가 이런 의미를 가질 때는 주로 all을 동반하여 문장 앞에 쓴다.

With all his fault, I still like him.

마지막으로, 사람 앞에 쓰여 '-에게'라는 뜻을 갖는다.

The first object with him is to make money. The first object for him is to make money.

He is strict with children. She is angry with(at) me. What's matter with you? What do you want with me?

처음의 두 문장 그에게 있어 첫 번째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에게'라는 전치사는 다르다. 전치사가 다르게 쓰인 만큼 문장의 어조도 다르다. 앞서 설명했듯이 with는 말할 당시의 동시 상황에서 사용된다. 그래서 with가 쓰인 첫 번째 문장은 현재 그에게 있어 첫 번째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다. 장래의 목적은 다른 것일지라도(같더라도 상관없다) 지금 당장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다. 반면에 for가 쓰인 두 번째 문장은 그에게 있어 즉 그의 인생을 통틀어 볼 때 그가 이루고자하는 첫 번째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다라는 의미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 앞에 쓰는 with와 for는 구별하기 어렵다.

어떤 대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나타낼 때는 at을 쓴다.

She is angry at Tom.

She is angry with Tom.

그녀는 화가 났는데 그 목표가 되는 사람이 Tom이다. 반면에 두 번째 문장은 단순히 그에게 화가 나있다는 어조다.

이상으로 전치사 with 설명 끝.

※같은 혹은 동시상황을 나타내는 with

- 1. 정선생님은 우리와 함께 영작을 공부하신다.
- 2. 내 딸은 나와 함께 춤을 추었다.
- 3. 나는 그녀와 사귄다.(associate)
- . _ . . . _ . ,
- 4. 그 문제에 대해서 부모님과 나는 논쟁을 하였다.
- 5. 형제들과 싸우지 마라.

※ 도구의 with

- 1. 아이들이 칼을 갖고 놀면 위험하다.
- 2. 저 노인들은 지팡이를 갖고 걷는다.

 \rightarrow

3. 수프는 스푼으로 먹으세요.

 \rightarrow

4. 자(ruler)를 대고 선을 그으세요.

 \rightarrow

5. 가위로 천을 자르세요.

 \rightarrow

- ※ 동시 상황의 with
- 1. 그녀는 입에 침을 흘린 채로 잠을 자고있다.

 \rightarrow

2. 그는 팔짱을 낀채로 서있다.

 \rightarrow

3. 그는 양반다리를 한 채로 밥을 먹고 있다.

 \rightarrow

※ 같은 상황의 with

- 1. Mr. Jeong studies writing in English with us.
- 2. My daughter danced with me.
- 3. She associates with me.
- 4. I argued with my parents on that matter.
- 5. Don't fight with your brother.

※ 도구의 with

- 1. It is dangerous for children to play with a knife.
- 2. The old person walks with stick.
- 3. Please eat soup with a spoon.
- 4. Please draw a line with a ruler.
- 5. Cut the cloth with a pair of scissors.

※ 동시 상황의 with

- 1. She is sleeping with a mouth watering.
- 2. He is standing with his arms folded.
- 3. He is eating with his legs crossed.